

2011학년도 제 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

일 시 : 2011년 1월 24일(월) 오후 3시

장 소 : 선관회의실

## 제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: 2011년 1월 24일(월), 오후 15:00~16:30

2. 장 소: 선관 회의실

3. 참석위원(5명)

|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|
| 오수근 위원장 | 기획처장     |
| 신경식 위원  | 재무처장     |
| 차미경 위원  | 학생처장     |
| 서미옥 위원  | 예산과장     |
| 정창모 위원  | 삼덕회계법인이사 |

불참위원(3명)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류이슬 위원 | 학부 총학생 회장  |
| 김지영 위원 | 학부 총학생 부회장 |
| 이혜경 위원 | 대학원 학생 대표  |

4. 안 건: 2011학년도 등록금산정을 관한 심의 건

5. 회의내용

- 오수근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‘등심위’라 한다.) 총 위원 8명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.
- 신경식위원이 2011학년도 등록금 산정근거에 대해 설명함. 관리운영비 3.2% 인상, 연구학생경비 2.8% 인상, 유형고정자산매입비 1% 인상, 감가상각비 100% 반영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5% 인상하였을 때와 3.4% 인상하였을 때 등록금은 각각 8.2%, 7.0%가 인상되어야 함. 그러나 학생들의

학업독려 및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신입생 등록금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인상율을 반영하고자 함.

전체 수입 부족분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신입생 2.5% 인상분만 반영했을 경우, 사업비를 75억 감축하고 감가상각비를 일부만 반영하는 (1)안과, 인건비 3.4% 인상, 사업비 53억 감축, 감가상각비 일부만 반영하는 (2)안에 대하여 설명함.

- 등록금 인상요인은 많으나 신입생만 2.5%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, 2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들에 동의함.
- 차미경위원은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을 왜 차등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.
- 신경식위원은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의 증가, 신입생을 위한 해외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재학생에 비해 신입생에 대한 학생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며, 학부신입생의 등록금을 2.5% 인상할 경우 약 7억원 정도의 등록금이 증가되지만 신입생에 대한 학생경비 증가분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
- 정창모 위원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고, 그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적립되어야 건물 신축 등 건축 관련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감가상각비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기함
- 신경식위원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적립할 수 있고, 적립할 감가상각비는 물가인상율을 감안한 시가가 반영되는 것

이 현실적으로 적정하나,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것이며,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구조적으로 제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.

- 학부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하고 신입생등록금은 2.5% 인상하는 안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함.
-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등심위를 한번 더 개최하는 것으로 모든 위원들이 의견으로 모우고, 3차 등심위에서 대학원의 등록금을 논의하기로 함.
- 등심위 제3차 회의를 모든 참석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1월 26일(수) 오전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하고 오후 4시 30분에 폐회함.

2011년 1월 24일

오 수 근 위 원 장

신 경 식 위 원

차 미 경 위 원

서 미 옥 위 원

정 창 모 위 원

